

2022. 12. 17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시설공단
장애인콜택시운영처

운영처장	최유철	02)2290-6501
관리팀장	변경섭	02)2290-6197
담당자	신원철	02)2290-6554
관련 누리집	www.sisul.or.kr→장애인콜택시운영처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총 3매

서울시설공단, 장애인 주말 동행나들이 ‘훈훈 사연’ 눈길

- 미니버스를 이용한 장애인 고객들의 훈훈한 나들이 사연 ... 특수학교 4명 동급생 첫 동행 나들이
- 삼남매가 모두 휠체어 장애인인 고객, 십여년 만에 함께 용미리 묘지로 부모님 성묘

- 서울시설공단(이사장 한국영)은 시행 한 달을 맞은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 이용객들의 훈훈한 사연을 16일 공개했다.
- 공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미니버스를 이용한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를 하고 있다. 매월 둘째·넷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, 경기, 인천 지역 내 원하는 목적지로,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. 이용 차량인 미니버스는 휠체어석 4석과 일반석 10석.
- 공단에 따르면, 지난 11월 12일 공단의 첫 ‘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 이용 고객은 삼남매 모두가 휠체어 장애인인 A씨 삼남매였다. A씨 삼남매는 이날 파주 용미리 1·2묘지로 부모님 성묘를 다녀왔다. 파주는 서울 장

에인콜택시 운행지역이 아닐뿐더러 휠체어 장애인인 삼남매가 함께하는 성묘는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근 10여년간 불가능했던 일. 그들이 서비스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기대를 품고 신청했다고. A씨는 서비스 이용 후 공단 홈페이지에 “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 휠체어를 밀어주시느라 비를 맞아가며 도와주셨습니다. 저희 삼남매가 모두 희귀질환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데 함께 부모님께 다녀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”라는 소감을 남겼다.

- 또한 11월 17일 두 번째 서비스 이용 고객 B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. B씨는 자녀의 특수학교 동급생 3명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. 이들의 목적지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. B씨는 “그동안은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기가 어려워 친구들과의 여행은 꿈꿀 수 없었지만, 이번 여행을 통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. 매일 치료실만 오가던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지난 11월 26일에는 고객 C씨가 가족들과 함께 가평군 자라섬을 다녀왔다. 여행을 좋아하는 C씨는 자라섬을 텔레비전에서 본 후 가고 싶다고 생각해오다 신청했다고. C씨는 “남도 꽃정원, 봄의 정원 등 평소 보기 힘든 식물들로 가득 찬 경관이 매우 인상적이었고, 그들이 내내 휠체어 이동의 불편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유익한 여행이었다”라며 “향후 그들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교통약자들이 더 편하게 문화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- 2023년도에도 계속 될 서울시설공단의 ‘장애인 주말 동행 나들이 서비스’를 이용하기 원하는 고객은 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서 이용날짜와 목적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. 동일 날짜에 신청자가 겹칠 경우 장애 정도나 시티투어 경험 여부 등에 대해 내부심의 후 확정, 통보한다.

○ (신청) https://www.sisul.or.kr/open_content/calltaxi/

- 서울시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“공단은 서울시의 ‘약자와의 동행’ 정책에 맞춰 약자, 소수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하나씩 선보이는 중이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공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지속적이고 꼭 필요한 약자동행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관련사진〉



〈미니버스〉



〈서울 장애인 버스〉